

2019 국별 진출전략

루마니아



I.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3

- 1. 개요 3
 - 가. 시장 전망 3
 - 나. 주요 경제지표 4
- 2. 2019년 주요 이슈 및 전망 4
 - 가. 루마니아 경제성장률 감소세 4
 - 나. 인력부족 현상 심화 4
 - 다. 부정부패와 사법시스템 위기 5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7

-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7
- 2. 시장분석 14
 -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14
 - 나. 수출 14
 - 다. 투자진출 17
 - 라. 프로젝트 18
-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의제 20
 - 가. 교역 20
 - 나. 투자 20
 -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21

III. 진출전략 23

-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23
-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4
- 3. 한-루마니아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29

첨부 1. 수출유망 품목 33

첨부 2. 2019년 KOTRA 주요 사업 (잠정) 35

첨부 3. 2019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전시회 캘린더 36

I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전망

□ 2019년 루마니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감소세 예상

- 2017년 경제성장률은 6.9%로 EU 내 최고 수준
 - 탄탄한 국내소비와 경기 순행적인 경기부양책이 주요 성장원인
 - 루마니아 정부가 실시한 경기부양책으로는 최저 임금과 공공부문 임금 인상이 있음
- 2018년 경제성장률은 4.1%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인플레이션이 실질 가치분소득을 감소시켜 개인소비가 감소함. 그럼에도 개인소비가 여전히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 역할을 함
 - EU 기금의 재원조달 프로젝트 시행에 따른 투자증가가 예상됨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인구	백만 명	19.9	19.8	19.7	19.6	19.6	19.6
명목GDP	십억 달러	199.3	178.0	197.7	206.7	243.5	253.3
1인당 명목GDP	달러	9,995	8,906	9,465	9,668	10,406	12,247
실질성장률	%	3.0	3.8	4.8	6.9	4.1	3.5
실업률	"	6.8	6.8	6.4	4.9	4.6	4.6
소비자물가상승률	"	1.1	-0.6	-1.5	1.5	2.8	2.6
재정수지(GDP대비)	"	-1.9	-1.5	-2.4	-2.8	-3.6	-3.4
총수출	백만 달러	69,719	60,617	63,538	70,782	68,677	64,834
(對韓 수출)	"	408	460	327	273	-	-
총수입	"	77,750	69,850	74,566	85,506	82,572	72,235
(對韓 수입)	"	620	536	565	465	-	-
무역수지	"	-8,031	-9,277	-11,028	-14,724	-11.8	-11.9
경상수지	"	-910	-2,032	-3,733	-3.4	-3.7	-3.7
환율(연평균)	현지국/US\$	3.35	4.01	4.02	4.02	3.71	4.05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3,214	3,841	4,997	4,900	-	-

*주: 2018년은 추정치, 2019년은 전망치

자료원: IMF, IIF, EIU, EC, World Trade Atlas

2. 2019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루마니아 경제성장을 감소세
- 인력부족 현상 심화
- 부정부패와 사법시스템 위기

가. 루마니아 경제성장을 감소세

□ 경제성장을 감소의 원인과 전망

- 인플레이션이 실질 가치분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쳐 민간소비 감소로 이어짐
 - 경기부양 효과도 약해지면서 국가의 전체 성장동력이 전년 대비 감소
- 소비에 대한 정부지출보다 교육과 인프라에 대한 정부지출이 늘어날 전망
 - 인구고령화와 이주로 인해 노동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자동차 생산과 같은 분야에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발생 중
 - 이는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
- 2018년과 2019년 루마니아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17년 6.9%에서 각각 4.1%(2018), 3.5%(2019)로 감소할 전망
 - 투자비중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 소비는 계속해서 주요 성장동력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됨
 - 수출보다 수입이 높은 경제구조상 순수출의 기여는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예상됨
- 성장둔화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18년~2021년 동안 GDP의 40%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루마니아는 2014~2020년 동안 220억 유로의 EU 구조기금을 배정받음. 더불어 이 기간 동안 농업기금으로 175억 유로를 배정받음
 - 하지만 이런 전망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결함과 루마니아 정부의 코파이낸싱 부족으로 이전 배정 기간의 평균 흡수율인 78%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나. 인력부족 현상 심화

□ 세계 2위의 인구유출국

- UN International migrant report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루마니아는 내전중인 시리아 다음으로 인구유출이 높은 국가로 기록됨

- 2007년 EU 가입 이후 현재까지 약 400만 명의 루마니아인이 자국을 떠난 것으로 집계됨
- 유출인구의 평균나이는 약 25세로 다수의 젊은이들이 루마니아를 떠나길 희망하며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
-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언어, 문화, 제도적으로 유사한 EU 내 서유럽 국가들로 대부분 이주함
- 언어가 유사한 이탈리아(약 1백만 명), 스페인(약 90만 명) 내 최대 이민
- 기술 이민자들은 주로 독일(약 50만 명), 영국(약 50만 명)으로 이민

□ 기업의 구인난 가중

- 루마니아의 실업률은 현재 완전고용에 가까운 4.7%를 기록 중(IMF 10월 통계 기준)
 - 최근 3년간 지속 하락추세 : 2016년(6.4%) -> 2017년(5.1%) -> 2018년(4.7%)
 - 현재 기업들의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 과거에는 인력수요가 높은 IT 분야의 인력부족 현상이 있었으나 현재는 인문계열의 인력들도 구하기가 어려움. 이는 다국적 기업, 현지진출 한국기업, 로컬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현상임
 - 이와 함께 임금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루마니아 노동자들은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낮기 때문에 기존보다 높은 임금을 주면 빠르게 이직을 함. 이로 인해 인력이 유출되는 공장이 늘고 있음
 - 루마니아 내 인력부족으로 인근국인 몰도바, 세르비아, 불가리아 등지에서 인력을 데려오는 추세. 일부 공장은 EU 외에서도 인력 수급
- * 노르웨이 그룹 Vard 소속의 한 조선소는 2017년 300명의 인력을 베트남에서 수급해옴

다. 부정부패와 사법시스템 위기

□ 루마니아는 불가리아와 함께 EU 내 가장 부패한 국가 중 하나

- 루마니아는 아직 부정부패가 만연한 나라로 EU 내 가장 부패한 국가 중 하나로 뽑히고 브뤼셀이 루마니아의 사법제도를 특별 감시하고 있음
- 최근 루마니아의 EU 가입의 일환으로 제정되었던 사법체계와 부패방지 대책을 약화시키려는 집권당(PSD)의 시도에 대해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시위가 발생
 - 변경 추진 법안 내용 : DNA로 알려진 루마니아 반부패위원회(공수처)의 힘을 크게 제한함으로써 고위 공직자의 범죄와 부패에 대해 기소조건을 까다롭게 만들. PSD에서는 20만 유로 미만의 금전적 피해를 초래하는 공직 범죄에 대해선 더 이상 법적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 해당 법안은 또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뇌물을 수수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금하는 내용을 포함

- 2018년 8월 부쿠레슈티와 루마니아의 주요 도시들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정부의 반부패 약화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임. 시민들은 집권당인 사민당의 사법부 약화 시도에 반대하며 정부의 사임을 요구. 반정부 시위가 폭력사태까지 번지고 군중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경찰이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사용하면서 충돌

□ 사법시스템 위기 봉착

- 사법 개정 이슈 진행사항
 - 루마니아의 기존 사법을 개정하는 3개 법안이 2017년 말 국회에서 채택
 - 클라우스 요한니스(Klaus Iohannis) 대통령은 5월에 베니스 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했고 전문가 대표단이 6월에 루마니아를 방문하여 현지 관계자들과 회담을 가짐
 - 루마니아 사민당이 주도하는 의회는 6월 법률과 검찰의 독립을 위협한다는 전문가들과 국제기관의 경고를 무시한 채 형법 개정을 채택
 - 루마니아는 EU 의원들로부터 법치를 무시한 것에 대해 거센 비난에 직면하였고 총리가 정부부패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유럽의회 의원들에 의해 소환됨
 - 대통령은 10월 3개 법안중 하나인 판사의 지위에 관한 법을 공포. 이는 유럽 위원회를 포함한 국제적인 파트너들의 우려와 국내 지역 판사단체의 강력한 항의를 촉발
 - 베니스 위원회는 사법변경에 대해 루마니아 당국에 9개의 권고안 제시
 - 베니스 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전인 10월에 루마니아 법무부는 의회가 채택하고 대통령에 의해 공포된 사법 개정안에 대해 새로운 비상 조례를 채택

2019년 주요 일정

- 루마니아 대통령 선거 : 2019년 12월
- 루마니아 EU 각료이사회 의장국 : 2019년 1~6월
- 루마니아 EUSDR 의장국 : 2018년 11월~2019년 11월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정치) 2019년 차기 대통령 선거 실시, 사법위기는 논란 지속 예상
- (경제) 루마니아의 경제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다소 완화될 전망
- (산업) 의료기기, 화장품, 자동차부품, 섬유제품 분야 유망
- (정책) 최저임금 인상과 EU 기금 운용 방향이 주요 이슈

가. 정치 환경

□ 차기 루마니아 대통령 선거는 2019년 12월에 실시될 예정

- 루마니아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연임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회 동안 임기를 유지할 수 있음. 현직 대통령인 클라우스 베르너 요하니스(Klaus Werner Iohannis, 독일계 루마니아인)는 2014년 중도우파 자유당(PNL) 당대표 시절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
- 전통적으로 루마니아 대통령 선거에는 많은 후보자들이 참여
 - 2014년 대선 1차 투표에는 14명의 후보가 참여
 - 루마니아 대선은 결선투표제로 1차 투표에서 50%를 넘는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2차 선거가 치뤄짐. 현직 대통령과 사민당(PSD)의 후보가 2차 선거에서 대결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3월 PNL의 전국 당원협의회에서 현직 대통령인 요하니스의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승인. 2018년 6월 후보자 역시 직접 출마 선언
 - 2016년부터 하원 의장이었던 Liviu Dragnea와 2016년부터 부쿠레슈티 시장이었던 Gabriela Firea는 PSD당의 강력한 대통령 후보로 부상
 - 사민당 당대표인 Dragnea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음. 그는 부정선거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
 - 현재 집권당에 반대하는 지지자 중 일부는 직전 국가부패방지위원회(공수처) 위원장이었던 Laura Codruta Kovesi를 대선후보로 지지

[루마니아 현재 국회 의석수]

	사회민주당 (PSD)	자유당 (PNL)	루마니아 구국연합 (USR)	민주 헝가리연합 (UDMR)	자유 민주연합 (ALDE)	국민 행동당 (PMP)	소수 민족 대표	무소속	총계
상원	67	25	13	9	8	5	-	8	135
하원	150	67	28	21	19	13	17	14	329

현재 집권여당: PSD+ALDE, 야당: PNL 등

자료원: 주루마니아 한국대사관

- 현재 하원의장이며 집권여당의 당대표인 Liviu Dragnea가 현재 루마니아 정권 최고 실질 권력자.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통해 대선출마 추진 중. 그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경우 루마니아의 부정부패, 사법시스템 위기는 한층 가중될 전망

□ 2019년 EU 내 주요 역할 수행

- 루마니아는 2019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EU 이사회 의장국 역할 수행 예정
 - EU 조약에 의해 EU 회원국들은 3개 회원국이 'Trios'를 이루어 6개월마다 순번대로 돌아가며 EU 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이사회를 주관하고 장기 목표, 어젠다 설명 및 이행관리 등 18개월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됨. 이번 Trios는 핀란드, 크로아티아, 루마니아로 구성됨
 - 이번 이사회에서는 브렉시트 절차(Brexit Process)와 유럽 재정과 관련된 다년 재정 프레임워크(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전망
- 루마니아는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1월 1일까지 다뉴브 지역 유럽연합전략(EUSDR)의 의장국 역할 수행 예정
 - 해당 Trios는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로 구성
 - 루마니아는 EUSDR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며 다뉴브 지역의 국가에 대한 관심 주제와 계획을 촉진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회원국 간 합의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권한 부여기간 동안 루마니아는 유럽위원회 및 다뉴브 다국적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EUSDR의 연례 포럼을 추진할 예정

□ 부정부패 및 사법시스템 위기

- 집권여당(PSD)이 부패방지에 역행하는 사법제도 개편을 시도
 - DNA(공수처)의 권한 축소 및 부패 공무원들의 처벌 수위 완화
 - 루마니아 내 반대여론이 커지며 대규모 시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음
 - EU 및 미국에서 수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무시한 채 강행하여 민주주의와 투명성 제고에 역행하고 있음

- 여전히 사회 내 만연한 부정부패
 - 루마니아는 불가리아와 함께 EU 내 가장 부패한 국가 중 하나이며 심각한 부정부패는 EU 가입 이후 쉥겐조약, 유로존 가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 중
 - 외국기업이 현지 투자진출 시 부정부패와 관료주의로 인한 애로사항 다대
 -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민간부문에 반해 정부 및 공직사회는 구공산권의 폐해가 아직 남아 있으며 국가성장에 심각한 저해요소로 작용

나. 경제 환경

□ 거시경제 동향

- (성장) 루마니아는 EU 내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EIU에 따르면 2017년에는 2007년 이후 최대치의 경제성장률 6.9%를 기록함. 하지만 2018년에는 4.1%로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
 - 탄탄한 내수, 외국인 투자확대 등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경제흐름은 지속적으로 성장추세. EC에 따르면 2018~2020년도 루마니아의 실질성장률은 한풀 꺾일 것이라 전망하였지만 여전히 매년 평균 3.7% 정도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물가) 2017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5%를 기록. 2018년에는 전년 대비 상승한 2.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전반적인 생활물가 상승, 임금수준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
 - 2018~2020년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3.0% 정도일 것으로 전망
- (고용) EC에 따르면 루마니아의 2017년 실업률은 5.1%였으며, 인구고령화와 해외이민 증가로 인한 인력유출로 실업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음. 2018년도에는 4.2%의 실업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노동시장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EC는 2019년 루마니아의 실업률을 4.2%로 내다보았으며 점차 하향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무역) 전체 경제규모의 성장과 함께 수출입 규모도 성장하고 있음. EU에 따르면 무역규모는 2017년 7월 10억 유로에서 2018년 7월 12억 7,000만 유로로 확대됨. 이후에도 단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 전망됨
 - EC는 2019년 루마니아의 경상수지 적자가 전년과 동일해 GDP의 3.7%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전체 교역규모의 성장과 수요 확대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환율) 2016년, 2017년 달러화 대비 유로화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으나 2018년부터 다시 점차 약화세를 보임
- EIU에 따르면 루마니아 레우(RON)는 2019년도에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

다. 산업 환경

□ 서유럽 기업의 지배력이 높은 산업구조

- 루마니아는 EU 내에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의존도 1위를 기록
 - 루마니아 전체 국내 매출의 약 50%가 외국계 기업에 의해 발생함. 2018년 4월 기준 외국계 기업 수는 루마니아 전체 기업수의 25%를 차지(21만 7,400개사/88만 9,279개사)
- 루마니아 내 핵심 먹거리리는 서유럽 기업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루마니아 기업들은 주로 수입 유통업에 치중되어 있음. 이에 따라 루마니아 자체 글로벌 기업이 아직 부재

[루마니아 내 서유럽 기업 비중]

연번	국가	기업수	비중(%)
1	이탈리아	46,137	21.25
2	독일	22,293	10.27
3	프랑스	9,073	4.18
4	네덜란드	5,174	2.38
5	벨기에	3,876	1.79
6	스위스	2,949	1.36
7	영국	562	0.26

자료원: National Register of Commerce(2018. 4)

□ 주요산업

- 2022년까지 의료기기 시장의 지속성장 기대
 - 루마니아 의료기기 시장은 현재 5억 유로 규모로 추산되며 매년 약 5%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정부와 민간 소비자에 의한 루마니아의 경제 지속성장과 함께 건강 관련 지출이 증가하면서 민간 의료서비스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
 - 루마니아 의료기기 시장은 2018~2019년까지 약 5억 9천만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루마니아 내 의료기기 중 약 90%는 수입이며 주로 EU에서 수입
 - * 주요 수입국 : 독일(34.7%), 네덜란드(7.8%), 벨기에(7.5%) 등
 - 루마니아 내 약 300개의 의료기기 유통업체와 외국계 기업이 존재함. 대표적인 외국계 제조사들은 미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중국, 터키계임
 - * 의료기기 주요 수입유통업체 : Sof Medica, Sante International, Valdomedica Trading, Tehno Electro Medical Company (TEMCO), Fresenius Medical Care, General Electric Medical Systems

○ 규모의 성장과 함께 한국기업의 진입 가능성이 높은 화장품 시장

- 2017년 루마니아 화장품 시장규모는 약 15.2억 달러로 추정되며 전년 대비 5% 성장. 2018년에는 약 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경제여건 개선, 소비자의 구매력 향상, 화장품 지출비중 증가 등이 성장요인
- 소비자들의 가장 중요한 구매기준은 가격. 루마니아 시장에서는 프로모션 및 할인행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음. 가격 경쟁은 현지 화장품 비즈니스에 있어 핵심요소
-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특정 인공성분이나 방부제를 피하기 위해 화장품 라벨들을 주의 깊게 살펴며 제품에 많은 관심을 기울임. 피부 관리를 위해 소비자들은 인공성분이 없는 천연제품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
- 최근 유행하는 천연성분으로는 argan oil, almond oil, shea butter and apricot kernel oil 등이 있음. 또한 최근 트렌드 중 하나는 피부관리(안면 마스크)에 클레이를 사용하는 것인데 클레이의 정화 및 영양적 특성 때문에 헤어케어 제품에도 사용함. 최근에는 유기농 제품 수요도 증가
- 루마니아 화장품 시장은 다국적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

[루마니아내 주요 다국적 기업 현황]

업체명	본사	시장점유율(%)
Avon Products	미국	10
L'Oreal Groupe	프랑스	9
Coty Inc	프랑스	6
Procter&Gamble	미국	6
Beiersdorf	독일	5
Unilever	영국	5
Farmec	루마니아	5

자료원: Euromonitor(2017)

- 루마니아 화장품 기업 중 하나인 Farmec은 한국에서도 유명한 Gerovital 브랜드를 보유. 자사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기 위해 자체 소매 네트워크 확장에 많은 투자. 그 결과 지난해 매출이 약 20% 가까이 증가. 현재 루마니아 내 19개의 소매점을 보유 중이며 이 중 8개가 2017년에 오픈
- 인터넷 소매업은 2017년에 가장 빠르게 성장한 유통 채널. 루마니아 인터넷 보급증가로 소비자들은 구매결정을 내리기 전에 더 많은 제품을 온라인으로 검색함. 온라인숍에는 실제 매장보다 더 저렴한 가격의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여 소비자들의 이용도가 높아짐
- 오프라인에서는 다국적 기업이 운영하는 화장품 전문 소매업체들이 아직 큰 역할을 하고 있음. 이들은 주로 쇼펄센터와 부쿠레슈티 및 주요 도시의 주요 상업지역에서 영업 중

* 루마니아 주요 화장품 전문소매업체 : Sephora, Douglas, DM Drogerie Markt, Marrionaud

○ 자동차부품 시장

- 루마니아는 유럽 내에서 자동차 제조 관련 10위권 국가. 루마니아 내 대표 자동차 제조사인 르노 다치아와 포드루마니아는 판매와 생산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 2017년 자동차 생산대수(36만 4,564대), 2016년 자동차 생산대수(35만 8,591대)
- * 2018년 1~2월간 2만 대 이상의 신규차량이 등록됨. 중고차 거래는 7만 9,000대 이상 기록
- 2018년은 최근 10년간 자동차 시장의 최고 활황기. 2018년 8월까지 전체 볼륨은 11만 9,093대를 기록. 제조사 중 르노다치아가 최대 판매를 기록. 다치아 브랜드 중 Logan이 루마니아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선호됨
- 2018년 유가는 최근 4년간 최고치를 기록. 일부 기업은 2019년에 전기, 하이브리드 모델 론칭을 준비 중. 전기차 시장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
- * 전 세계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모델 판매량은 2019년 약 20% 증가할 전망
- 인접국인 헝가리는 이미 2개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보유 중이며 관련 엔진과 차량을 생산 중으로 수요확대에 준비가 되어 있음
- 폴란드는 유럽 내 최대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보유할 예정
- 루마니아는 열악한 인프라 환경 때문에 아직 인근국에 비해 뒤처져 있는 실정으로 정부는 관련 대책을 강구 중
- 루마니아 정부는 르노다치아의 Mioveni 공장 케파 증설 결정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음. 현재 35만 대 생산규모에서 45만 대까지 증설 계획 중
- 2014~2020년 EU 기금 배정기간 내 거의 5년 동안 인프라 조성에 대한 기금흡수율이 6%밖에 되지 않음. 이는 전체 배정액 225억 유로 중 14억 유로에 불과
- 다른 EU 회원국과 비교해서 루마니아의 인프라 환경은 매우 취약함. 열악한 전력 공급망, 가장 짧은 고속도로 연장길이, 낙후된 철도가 대표적. 루마니아보다 인프라가 취약한 곳은 불가리아밖에 없음

○ 섬유 시장

- 섬유산업은 과거 경제위기 이후 많은 기업들이 생산을 중단하였으나 최근 루마니아 섬유시장은 회복세를 보이는 중
- 현지 수요는 주로 가구제품(소파), 가정제품(베개, 매트리스, 쉼트 블랭킷), 신발류나 의류에 들어가는 제품이 많음. geo-textile과 civil engineering에 대한 수요는 제한적으로 존재
- 다음과 같은 제품에 대한 수입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가구에 사용되는 스폰본드 부직포(spun bonded nonwoven), 토목섬유(geo-textile)는 현지생산보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 토목섬유 제조에 들어가는 원재료는 주로 폴리에틸렌과 폴리에스테르임. 폴리에스테르 자체는 사용수요가 제한적임
- 한국은 해당 마켓 리더로서 포지션이 강화되어 있음. 원재료가 대량 수입되고 있으며 다양한 품질의 제품을 커버하고 있음
- * 2017년 HS CODE 550320의 수입량은 1,800만 달러에 달함. 전년 동기 대비 10% 상승
- * 2018년 6월까지 동일 코드의 수입량은 이미 천만 달러 이상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6% 상승
- * 한국은 루마니아 내 해당품목 수요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주요 수입국임

- 현지 생산업체는 1곳밖에 존재하지 않음(GREEN FIBER). 대만에서 투자한 업체이며 폴리에스테르 합성섬유를 생산

라. 정책·규제 환경

- 2018~2020년 루마니아 경제정책 플랜
 - 인프라 구축과 기본적 복지 보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공공투자 추진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단순화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합리화, 비즈니스 환경 개선,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에 대한 투자 촉진. 이를 위해 예측 가능한 재정정책 수립
 - 노인, 연금수령자 및 사회 취약층을 위한 사회보장을 위해 새로운 수당 도입 및 사회적 조치 실행
 - 공공부채 관리 방법의 개발 및 다양화
 - 예산 관리, 투명성 증대, 공공 지출 효율성 증대 추구
- 최저임금 인상 및 국민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
 - 2018년 1월 1일부 최저임금 인상 : 1,450레우(315유로) -> 1,990레우(432유로)
 - 2018년부터 공공기금에서 지급되는 개인소득은 25% 증가. 해당 금액은 종업원의 사회보장세로 보전
 - 2018년 3월 1일부터 의사와 간호사의 임금 인상
 - 공립대학 내 교직원의 임금 인상
 - 연금제도의 경우 연금 포인트의 가치 상승
- 루마니아 정부의 EU 자금 유치계획
 - 루마니아 정부는 더 많은 EU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정책기관의 제도적 역량을 높이고 자금 지원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
 - 루마니아 정부는 169억 유로 규모의 야심찬 경제개발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2020년까지 5%의 연간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이 계획은 향후 4년 동안 16개 분야에서 90개의 경제조치를 포함
- 정부는 2020년까지 EU 기금의 72.5%를 쓰고 그 나머지는 2023년까지 모두 투자할 계획임
 - 2023년까지 5억 3,000만 유로가 정보 기술 및 통신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는 교육, 보건, 공공 행정 부문의 전산화 계획을 포함

2. 시장 분석

- EU와의 교역량이 70%가 넘는 경제구조
- 주요 산업은 대부분 서유럽계 기업들이 지배력을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對루마니아 직수출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지만 한국과 루마니아의 교류가 점차 증가 추세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시장 특성

- EU와의 교역량이 전체 교역량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시장의 주요 대기업 중 다수가 EU, 특히 서유럽의 외자계 기업들로 유럽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시장임
- 민간부문이 취약하여 아직까지 시장의 주요 기업은 대부분 외국계 기업이거나 국영기업임. 루마니아 자체 글로벌 기업은 부재하며 대부분 수입 및 유통업체

□ 전략적 가치

- 2007년부터 EU의 정식 회원국이며, 지정학적으로 유럽, 중동, 러시아 사이에 위치하여 3대륙으로의 접근성이 용이
 - EU 가입 이후 2007~2013년, 2014~2020년 두 번의 EU 기금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음
- EU 내에서 경제성장이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음
 - 2016년 4.8% 성장, 2017년 6.9% 성장.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기록
- 한국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 높지 않지만, 과거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對루마니아 투자와 최근 IT 및 가전제품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높은 시장점유율 등으로 한국의 기업 및 제품에 대한 루마니아인들의 인식은 상당히 긍정적

나. 수출

□ 루마니아의 최근 수출동향

- 2017년 루마니아의 총수출 규모는 708억 달러를 기록. 이는 전년 대비 11.4% 증가한 수치.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루마니아의 국제 무역시장 점유율은 0.18%에서 0.39%로 두 배 이상 증가. 꾸준한 경제성장과 함께 해당 점유율은 2020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루마니아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구성품, 전자장비, 절연선, 정제유, 농업식품, 와인 및 주류, 목재, 직물 및 가죽, 산업용 기계, 금속제품, 자동차, 약품 등임. 2017년 루마니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수출품목으로는 전자장비, 전차(트램) 부품, 의료용 기계, 곡식류 등이 있음
- 가계소비의 증가로 인한 내수활성화로 인해 루마니아의 수출은 202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EU 기금 유입은 장기적으로 수출 잠재력을 증가시키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루마니아 국가별 수출액 및 변화율]

(2017년 1~12월, 단위: 십억 달러, %)

순위	국가	수출금액			변화율
		2015	2016	2017	2017/2016
-	전체	60.6	63.5	70.7	11.34
1	독일	11.9	13.6	16.2	19.12
2	이탈리아	7.4	7.2	7.8	8.33
3	프랑스	4.1	4.5	4.7	4.44
4	헝가리	3.2	3.3	3.3	0.00
5	영국	2.6	2.7	2.8	3.70
6	불가리아	2.0	2.0	2.3	15.00
7	터키	2.3	1.9	2.3	21.05
8	폴란드	1.6	1.8	2.2	22.22
9	스페인	1.7	1.9	2.1	10.53
10	체코	1.5	1.6	1.8	12.50
26	대한민국	0.4	0.3	0.2	-33.33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루마니아의 최근 수입동향

- 루마니아 경제는 탄탄한 국내수요를 기반으로 매년 성장 중. 2017년 루마니아 총 경제성장률은 6.9%로 가장 빠른 성장추세이자 EU 국가 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 전체 경제성장이 수입증가로 이어짐
- 경기부양책 및 최저임금과 공공부문 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이 성장동력으로 작동하여 2017년 민간소비는 8.9%, 수입은 14.6% 증가. 루마니아의 수입률은 매년 15.4%가 증가하고 EU 국가 (12.9%)와 EU 이외의 국가(23.3%)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면서 2017년 루마니아의 수입규모는 855억 달러를 기록
- 루마니아의 주요 수입품목에는 기계류, 원자재, 화학약품, 연료, 곡식류 등이 있음. 주요 수입국가는 다른 EU 국가인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와 프랑스 등임. 특히 독일로부터 수입이 루마니아 총 수입의 20%를 차지함
 - 최근 3년간 수입액 변화(백만 달러) : 69,850(2015년) -> 74,566(2016년) -> 85,506(2017년)

-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2017년 4억 6천만 달러로 한국제품의 루마니아 수입점유율은 0.54%(26위 수입국)에 불과함

[루마니아 국가별 수입액 및 변화율]

(2017년 1~12월, 단위: 십억 달러, %)

순위	국가	수입금액			변화율
		2015	2016	2017	2017/2016
-	전체	69.8	74.5	85.5	14.77
1	독일	13.8	15.2	17.0	11.84
2	이탈리아	7.5	7.5	8.4	12.00
3	헝가리	5.5	5.5	6.3	14.55
4	폴란드	3.3	3.8	4.6	21.05
5	프랑스	3.8	4.1	4.5	9.76
6	중국	3.1	3.7	4.2	13.51
7	네덜란드	2.7	3.0	3.4	13.33
8	터키	2.5	2.7	3.3	22.22
9	오스트리아	2.6	2.6	2.8	7.69
10	러시아	2.2	2.1	2.8	33.33
26	대한민국	0.5	0.5	0.4	-20.00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치 및 경쟁현황

- 우리나라의 對루마니아 10대 수출품목은 2017년 기준으로 볼 때 ①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 ② 철강 ③ 전기기기와 부품 ④ 플라스틱 ⑤ 철, 강철 ⑥ 합침 코팅, 적층 직물 ⑦ 의학 기구 ⑧ 철제품 ⑨ 인조 필라멘트 ⑩ 고무임.

[우리나라의 對루마니아 10대 수출품목(2017년 기준)]

(단위: 십억 달러, %)

순위	제품	규모	비중
1	원자로, 보일러 등	78,160,000	18
2	철강	72,880,000	17
3	전자기기와 부품	50,470,000	12
4	플라스틱	46,810,000	11
5	철, 강철	37,950,000	8.8
6	합침 코팅 등	25,840,000	6
7	의학 기구	24,920,000	5.8
8	철제품	19,900,000	4.6
9	인조 필라멘트	18,970,000	4.4
10	고무	12,680,000	2.9

□ 진입장벽

- 바이어들의 타깃 가격이 너무 낮은 경우가 많아, 한국 또는 아시아로부터 수출이 수지가 맞지 않은 경우가 다소 발생. 또한 비EU 회원국으로부터 통관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주저하는 바이어들도 존재

다. 투자진출

□ 최근 투자진출 동향

- 2017년 루마니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51억 달러로 전년 대비 3% 증가
 -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의 분포는 금속산업이 두드러진 가운데 은행 및 보험, 도소매, 에너지, 건설 및 통신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도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외국자본을 가장 많이 유치하는 지역은 부쿠레슈티(총액의 60% 이상)이며 그 외에는 중부와 남부 지역이 높음
 - 對루마니아 주요 투자국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및 프랑스 등임
- 루마니아는 EU 회원국이자 경쟁적인 임금,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유럽과 중앙아시아, 동부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부각되고 있음
 - 그러나 사법부, 입법부, 국가 재정의 일부분이 예측 불가능한 특성을 보임. 최근에는 에너지 부문과 관련된 자본집약적 인프라(capital intensive industries)에 세금을 부여하는 조치로 인해 외국인 투자의 이탈 및 추가진입 억제 현상이 나타남
 - 추가적인 해외직접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안정성, 경제 의사 결정에 있어 예측 가능성까지 모두 개선되어야 하며 최우선적으로 관료적인 절차에 불투명한 요소의 제고가 요구되고 있음
- 최근에는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가 투자진출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작용
 - 인력 해외유출, 완전고용에 가까운 실업률, 임금상승 등의 요인이 겹쳐 진출기업들의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음

□ 주요 경쟁국 투자진출 동향

- 서유럽 주요국은 대부분 루마니아에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품판매·유통을 수행하며,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루마니아의 저임금 노동력 활용을 주목적으로 생산설비 투자도 활발히 하고 있음

□ 투자진출 진입장벽

- 현지 사정이 어두운 우리 기업들은 공장 건설을 위한 적절한 부지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현행의 투자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제도 운영하에서는 정부보조금 수령이 어려움
 - 현행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제도는 정부보조금 지원신청 → 승인 → 투자로 운영되고 선투자 → 정부보조금 신청은 불가한바, 투자 여부를 결정한 뒤 신속하게 투자진출 절차를 밟는 우리 기업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기존 투자진출 기업들은 루마니아에서 법인운영 관련, 아래의 사항들을 주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음
 - ① 투자법인 수입원자재 부가세 환급 지연, 환급 요청 시 당국의 세무감사
 - ② 법률, 정책 불안정(예: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축소)
 - ③ 도로, 철도, 항만 등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개발
 - ④ 까다로운 비자발급 절차
 - ⑤ 까다로운 한국인 직원 증원(주재원 포함)
 - 현지채용 공고 및 면접절차를 거친 후 한국인 직원 증원 불가피성 입증서류 제출 필요

라. 프로젝트

□ 프로젝트 시장 최근 동향

- 법률제도 정비 및 정치안정 등으로 시장 활성화 촉진
 - 그동안 루마니아 정부는 각종 부정부패와 행정능력 부족, 법률체계 미비 등으로 공공 프로젝트 입찰 상당수가 계약 취소되고 이의제기로 인해 낙찰자 발표가 늦어지는 등 공공조달시장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지속
 - 그러나 2016년 말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2년 동안 반부패 척결, 헌법개정을 통한 입헌주의 강화 등으로 공공 프로젝트 시장여건이 안정되고 민관 합작을 통한 투자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PPP법 등 투자관련 법률, 제도 등도 정비
- 공공 프로젝트 입찰 지속 증가세
 - 2016년 루마니아에서 발주된 입찰건수는 7만 8,798건(공공조달청 통계 기준)으로 전년 대비 건수 기준으로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대규모 프로젝트 입찰이 등록되는 SEAP으로 발행된 입찰도 약 29% 증가
 - 분야 면에서는 건설 분야 관련 공공 프로젝트의 비중이 높아 루마니아 정부는 건설 분야에 프로젝트 투자예산의 58%가량을 지출
 - 2015년 루마니아 공공조달 프로젝트 시장규모는 163억 달러로 총 GDP 대비 8.6%를 차지

□ 프로젝트 시장 특성

- EU 역외국에 진입장벽 존재
 - 한-EU FTA에 따라 원칙적으로 한국기업의 입찰 참여에 대한 제한이나 차별은 없으나 입찰공고부터 서류제출까지 전 과정이 루마니아어로 진행
 - 평가과정에서 EU 역내 사업이력을 중요시하여 모든 프로젝트 참여 전 3~5년 동안 관련경험 혹은 유사한 규모의 사업에 참여한 이력을 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차별요인 존재

- 입찰수주 국가는 EU 역내국 기업 강세
 - 루마니아 현지업체는 금액이 적은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대형 프로젝트는 주로 외국계 기업들이 수주하고 있음. 루마니아 현지기업과 외국기업 간(EPC 등) 컨소시엄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루마니아 기업과 외국기업 간 파트너십 체결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음
 - 지난 3년 동안 대형 프로젝트 발주자의 95%가 유럽 회사들과 계약을 맺었고 이 중 스페인과 이탈리아 회사가 각각 1, 2순위를 차지

□ 프로젝트 수주 진입장벽

- 프로젝트 수주 관련 우리 기업들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진입장벽으로 꼽고 있음
 - ① 입찰 일정의 반복적인 지연 등 변경사항 다수 발생
 - ② 우리 기업이 참여할 만한 프로젝트 파악이 용이치 않음(너무 작은 프로젝트 규모 또는 매우 열악한 수익구조)
 - ③ 시간제약: 입찰정보 공고 후 서류 마감까지 기한이 매우 짧음
 - ④ 언어장벽: 입찰관련 정보가 모두 현지어로 작성. 제반 서류를 루마니아로 번역·공증 제출 의무
 - ⑤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 발굴 애로
 - ⑥ 제한된 시장정보로 인해 경쟁력 있는 견적산출에 실패

[유럽지역 무역관이 선정한 2018년 발주 프로젝트]

(단위: 백만 달러)

국가	프로젝트명	발주처명	발주규모	프로젝트단계	프로젝트일정
루마니아	Construction of a new Metro Line M6 (from Bucharest to Airport Otopeni)	METROREX	1,400	입찰 진행중	2018년 상반기 최종선정
루마니아	Maramures County Wastewater Treatment Infrastructure Project Technical Services	VITAL SA Baia Mare	16	입찰 진행중	2018년 상반기 최종선정
루마니아	Intermodal Freight Transport Centre and International Airport Cargo Terminal	County Council IASI	200	입찰 진행중	2018년 상반기 최종선정
루마니아	Construction of New Motorway Sibiu-Pitesti „Transcarpati”	CNAIR	1,750	입찰 진행중	2018년 상반기 최종선정
루마니아	Railway Rehabilitation Brasov-Sighisoara, Section 2 Apata-Cata	CFR	650	입찰 진행중	2018년 상반기 최종선정
루마니아	Design&Build Suspended Bridge between Braila and Tulcea (over DANUBE)	CNAIR	450	입찰 진행중	2018년 상반기 최종선정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의제

가. 교역

□ 한-루마니아 수출입 동향

- 최근 3년간 한-루마니아 간 교역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루마니아 수출은 5억 3,900만 달러, 수입 6억 1,500만 달러로 7,600만 달러의 적자를, 2016년은 수출 5억 5,896만 달러, 수입 5억 3,800만 달러로 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함. 2017년 수출은 4억 3,000만 달러, 수입은 4억 5,000만 달러로 2,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함. 2017년 기준 루마니아는 우리나라의 74위 수출대상국이며 59위 수입대상국임

[최근 한-루마니아 수출입 동향]

(단위 : 억 달러)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수 출	4.6	4.3	4.3	5.9	5.3	5.5	4.3	2.8
수 입	3.7	6.6	7.4	6.4	6.1	5.3	4.5	2.2
총교역액	8.3	10.9	11.7	12.3	11.4	10.8	8.8	5.0
무역수지	0.9	△2.2	△3.0	△0.4	△7.6	0.2	△0.2	0.6

자료원: 대한민국 관세청

- 한국과 직접 교역량은 적지만, 인근국의 한국기업 생산거점에서 수입되거나 타 국가의 바이어를 통해 구매하는 간접수입으로 인해 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직접 교역량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추정됨

나. 투자

□ 우리 기업 투자진출 동향

- (개요) 1990년 국교 수립 이후 1994년 대우자동차, 1997년 대우조선해양, 삼성물산, 2006년 두산중공업 등 대기업이 투자진출한 이후 헝가리 삼성전자 협력업체로 신홍정밀 등 중소기업의 투자진출이 이루어졌으며 2012년 세화 IMC, 2014년 지엠비코리아, 2015년 캐스텍코리아, 2017년 캄텍 등 자동차부품 관련 중소 중견기업의 투자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현황) 2018년 8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對루마니아 누적투자금액은 약 10억 달러를 기록함
- (특징, 트렌드) 한국 및 세계적 주요 기업의 글로벌 서플라이체인 전략의 일환으로 루마니아의 낮은 임금을 활용하여 유럽 내 생산기지를 두고자 하는 기업들의 투자진출이 두드러짐
 - 최근 들어 인건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자국 인력유출이 심화되어 노동력에 의한 투자 메리트는 감소하고 있음

- 루마니아 서북부 지역은 타 지역 대비 서유럽과 접근성이 용이하여 유럽 내 생산기지로써 여전히 투자진출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한-루 외교 관계 현황

- 1990년 3월 30일 외교관계 수립 이래 양국은 주요 인사교류, UN 등 국제기구에서 상호협조, 한국의 對루마니아 경험 등을 바탕으로 우호협력 기반 심화
 - 일리에스쿠(Iliescu) 대통령의 방한(1994. 3), 이수성 국무총리의 방루(1996. 5), 한국기업의 對루마니아 투자진출(1994~1997) 및 버세스쿠(Băsescu) 대통령의 방한(2005. 10/2008. 9/2012. 3), 노무현 대통령의 방루(2006. 9), 코를러체안(Corlătean) 외교장관 방한(2013. 7) 등 시현
- 특히 2008년 9월 한-루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래 재방면에서 우호 협력관계 심화 중
- 한국-루마니아 체결 주요 협정
 - 무역협정,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1990. 12)
 - 문화협정(1992. 6)
 - 외교관, 관용여권 사증 면제 양해각서(1993. 12)
 - 이중과세 방지협정(1994. 10)
 - 투자보장협정(1994. 12)
 - 일반사증 면제 양해각서(1996. 5)
 - 한-루 외무부간 협력 양해각서(1996. 10)
 - 투자보장 협정 개정 각서(1997. 5)
 - 항공협정(1997. 7)
 - 원자력협력협정(2004. 9)
 - 한-루 경제과학기술협력개정의정서(2005. 10)
 - 한-루 과학기술개발 및 혁신분야협력 의정서(2008. 9)
 - 한-루 투자증진 및 보호협력 의정서(2006. 9)
 - 한-루 전략적동반자관계 선언(2008. 9)
 - 한-루 사회보장협정(2008. 9)
 - 군사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2015. 3)
 - 사증면제에 대한 교환각서의 개정을 위한 각서(2016. 1)

□ 경제협약체 운영 동향

- 경제공동위 1차례 개최
 - 제1차 공동위 : 1997. 6, 부카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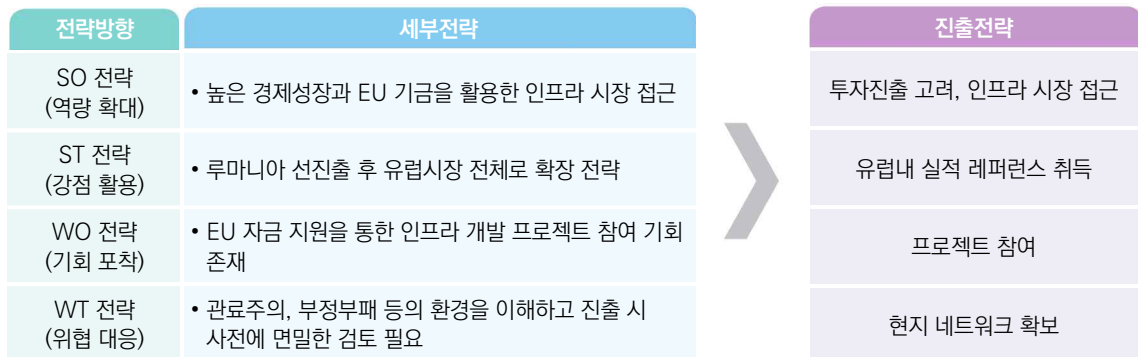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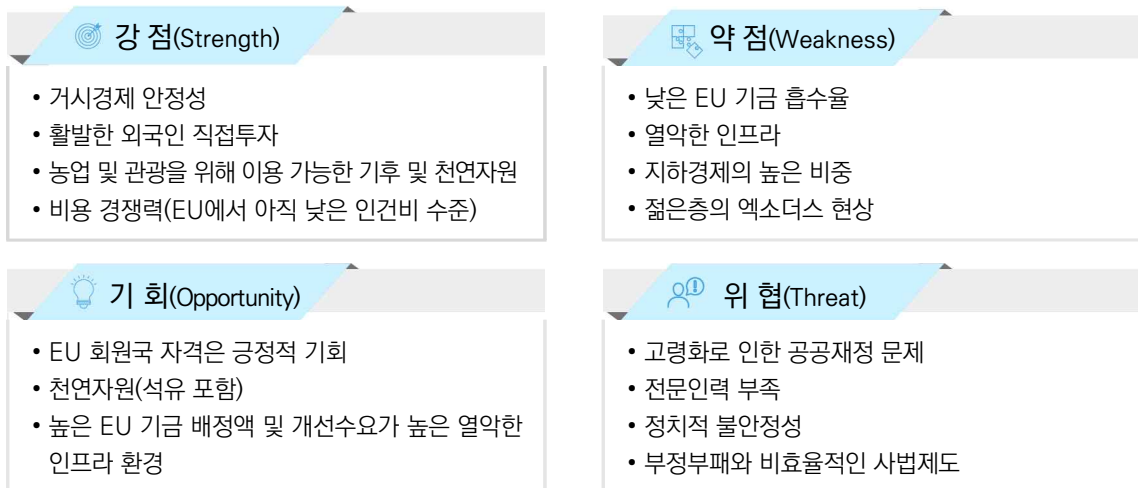
- 산업협력위(Industrial Cooperation Committe) : 9차례
 -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루마니아 측 경제부 간 협의체로서 차관급 수석대표가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주최(2016. 4, 부카레스트에서 제8차 회의 개최)
- 과학기술공동위 : 2차례
 - 우리 교육과학기술부와 루마니아 측 국립과학연구청 간 격년(2007년, 2009년) 개최 (국장급)
- 경쟁정책협의회(Competition Council Meeting) 4차례 개최
 - 양국 경쟁정책위원회 간, 제4차 회의(2004. 11, 부카레스트)
- 민간경제협력위원회(Economic Cooperation Committe between Chambers of Commerce) 5차례 개최
 - 제5차 회의(2006. 9, 부카레스트)
- 전경련-UGIR1903 간 협력약정 체결(2004. 5)

III 진출전략

-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유망품목 중심 수출 저변 확대
- 열악한 인프라 개선 수요를 바탕으로 주요 공공 프로젝트 입찰 참여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루마니아 지역 SWOT 분석]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019년 진출전략	
분야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의료기기	○ 루마니아의 민간 의료서비스 시장은 지난 몇 년간 증가세 기록 ○ 지난 10년 동안 루마니아는 치과, 성형, 안과(라식수술), 비만수술, 피부미용, 정형외과와 같은 전문의료 분야에서 매력도를 갖춘 나라로 자리잡음
자동차부품	○ 루마니아는 유럽 내에서 자동차 제조 관련 10위권 국가 ○ 2017년 자동차 생산대수는 36만 4,564대를 기록. 2018년 8월까지 전체 판매대수는 11만 9,093대를 기록 ○ 전체 시장규모는 2020년에 2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
섬유제품	○ 루마니아 섬유시장은 범위가 다양함. 한국은 특히 재생섬유 분야에 대해서 점유율이 높음 ○ 내수 소비증가로 시장이 현재 꾸준히 성장 중 ○ 2018년 말까지 한국에서 예상 수입물량은 2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화장품	○ 2016년 루마니아의 화장품 및 향수 판매는 12억 유로를 넘어섰고, 2018년 말에는 수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한국기업의 경우 명품시장, 자체 개발상품 등 틈새시장 공략 필요
2019년 지속적인 경제성장 속 의료기기, 자동차부품 등 유망품목 위주 시장 진출전략 수립	

가. 의료기기 시장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루마니아의 민간 의료서비스 시장은 지난 몇 년간 증가세 기록. 이는 공공시설 대신 개인병원, 클리닉, 연구소 등을 선택하는 루마니아인이 증가했기 때문.
- 지난 10년 동안 루마니아는 치과, 성형, 안과(라식수술), 비만수술, 피부미용, 정형외과와 같은 전문의료 분야에서 매력도를 갖춘 나라로 자리잡음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루마니아 의료기기 시장은 90%가 수입시장으로 대부분 EU에서 수입
 - 독일은 총수입량의 30.3%인 1억 4,760만 달러를 기록해 2018년에도 주요 수입국의 위치를 유지. 독일은 모든 분야에서 강세를 보임. 진단영상 수입의 36.3%, 기타 의료기기의 34.0%, 치과제품의 30.4%, 정형외과 및 보철의 26.7%, 환자 보조장비의 23.9%, 소모품의 20.1%를 차지
 - EU 내 기타 수입국으로는 네덜란드(10.7%), 벨기에(6.0%), 이탈리아(5.7%)가 포함. EU 28개국은 전체 수입의 81.4%인 3억 9,710만 달러를 기록
 - EU 이외의 지역에서는 중국이 전체 수입량의 7.6%인 3,690만 달러로 세 번째로 큰 공급국. 중국은 붕대 및 드레시의 36.4%, 치료용 기기 27.8%를 차지. 미국은 전체의 3.5%인 1,730만 달러를 수입
- 루마니아 의료기기 시장의 문제점 : 1인당 낮은 GDP, 열악한 인프라, 저개발 상태인 의료시스템 (특히 1차 진료시스템), 열악한 자원 관리 및 소규모 국내생산 부문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루마니아 의료기기 시장은 2015~2020년에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첨단기술장비 부족, 민간의료 분야의 확대, 의료시설을 건설하고 개선할 정부의 계획과 병원 내 혁신에 대한 필요성 등으로 의료기기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 시장은 여전히 수입에 크게 의존할 전망
 - * 민간의료 지출비중 : 204년 19.6%, 2015년 20.1%, 2016년 20.8%로 증가
- 정부의 의료시스템 개선 의지
 - 2014~2020년 사이에 확보된 10억 유로 상당의 EU 기금으로 부쿠레슈티, 이아시, 크라이오바, 클루지-나포카시에 지역 병원을 건설할 예정
- 유망품목 : 소모품(주사기, 바늘, 카테터), 진단영상장비, 치과제품, 정형 및 보철제품, 환자 보조 도구(휴대용 보조기구), 자외선 및 적외선 장비, 혈체어, 병원용 가구, 전기 심전도 등

나. 자동차부품 시장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루마니아는 유럽 내에서 자동차 제조 관련 10위권 국가. 루마니아 내 대표 자동차 제조사인 르노다치아와 포드 루마니아는 판매와 생산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17년 자동차 생산대수는 36만 4,564대를 기록. 2018년 8월까지 전체 판매대수는 11만 9,093대를 기록
- 전체 시장규모는 2020년에 2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루마니아 자동차 시장은 2009년부터 연평균 18%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200억 유로 규모로 성장할 전망
 - 지난 10년간 루마니아 내 600개 이상의 자동차부품 관련 OEM 생산공장이 설립됨
 - 2016년 기준 전체 차량 중 61%는 가솔린 차량이며, 39%는 디젤 차량인 것으로 나타남
 - 루마니아 내 주요 자동차업체는 르노다치아와 포드가 있음. 르노는 1991년에 설립되어 2017년 기준 1만 3천여 명의 직원을 고용 중이며 매출액은 45억 7천만 유로에 달함. 포드는 1994년에 설립되어 2017년 기준 2,60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8억 1,800만 유로를 기록
 - 루마니아 내 자국산 차량 판매는 계속해서 증가세. 수입차량의 경우 2017년 동안 7월을 제외하고 전부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증가

[자동차 브랜드별 시장점유율]

순위	브랜드	시장점유율(%)
1	DACIA	30.4
2	VOLKSWAGEN	10.8
3	SKODA	9.0
4	RENAULT	8.1
5	FORD	6.6
6	OPEL	4.8
7	HYUNDAI	3.4
8	TOYOTA	3.2
9	MERCEDES BENZ	2.9
10	SUZUKI	2.5

자료원: APIA(Automotive Manufacturers and Importer Association)

- 자동차부품 및 액세서리 시장
 - 2016년 기준 루마니아 내 약 600여개의 자동차부품 업체가 존재. 고용규모는 약 20만 명이며 매출액 규모는 약 160억 유로임

- 자동차부품 시장 대부분의 업체는 외국계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은 미개발 공장 및 생산시설에 외국자본을 투자해 개발하고 있음
- 소수의 루마니아 현지 부품업체들은 르노다치아와 포드에 납품함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루마니아 내 현지기업들은 구두나 개인 추천 등과 같은 비전통적인 방식을 여전히 선호하는 편. 반면 루마니아 내 외국계 기업들은 알맞은 절차를 거쳐 관심 바이어와 제휴관계를 맺는 것이 일반적. 르노다치아 또는 포드와 같이 루마니아 현지기업들에 자동차부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직접투자를 통한 현지공장을 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
- 루마니아 내 외국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조역량 개선 등을 위한 그린필드 투자 등을 통해 접근할 필요
 - 루마니아 내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는 것은 업체 대부분의 본사가 외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성사되기 어렵고 시간 또한 오래 걸림
- 원자재나 부품 및 액세서리를 루마니아 현지기업에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잠재 루마니아 고객들의 성향을 알아야 함
 - 회사 대표자와 빠른 의사결정 과정 선호
 - EU 수준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 있는 가격
 - 현지 공장으로부터 빠른 운송 요구

【 루마니아 내 판매 중인 주요 자동차부품 품목 】

순번	품목명	루마니아 생산업체
1	Tires	Pirelli, Michelin, Continental
2	Cables and Conductors	Valeo, Sumitomo, Lear Corporation, Draximaier, Delphi, Yazaki
3	Plastics	Valeo, Faurecia, Magna, Preh
4	Aluminium and Metal Manipulation	Kirchhoff, Bamsesa, GC
5	Rubber Technical Components	Ronera Rubber, Contitech
6	Bearing, Transmission components	Schaeffler, NTN, SNR
7	Electronics, Mechatronic Equipment	Marquardt, Bosch, Kuhnke, Continental, Delphi
8	Optical Devices	Elba, Hella, Valeo
9	Batteries, Accumulators	Rombat, Caranda
10	Recycling	Rombat, Caranda, Romcarbon

자료원: APIA(Automotive Manufacturers and Importer Association)

다. 섬유 시장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루마니아 섬유 시장은 범위가 다양함. 한국은 특히 재생섬유 분야에서 점유율이 높음
- 내수 소비증가로 시장이 현재 꾸준히 성장 중
- 2018년 말까지 한국에서 예상 수입물량은 2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현재 관련시장은 수요증가로 인해 매년 약 15%씩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주요 바이어들의 수는 한정적임. 약 5~10명의 바이어가 다양한 수량, 품질수준, 기술 사양 등에 관심이 있음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대부분의 유망제품은 PET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얻은 PES 섬유 형태임
 - 루마니아의 재활용 정책은 아직 미비하며, 시장에 양질의 PES를 공급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업체들은 수입에 크게 의존
 - 재생 폴리에스테르 섬유는 가격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존재하는 한 노력할 만한 시장이 될 수 있음

라. 화장품 산업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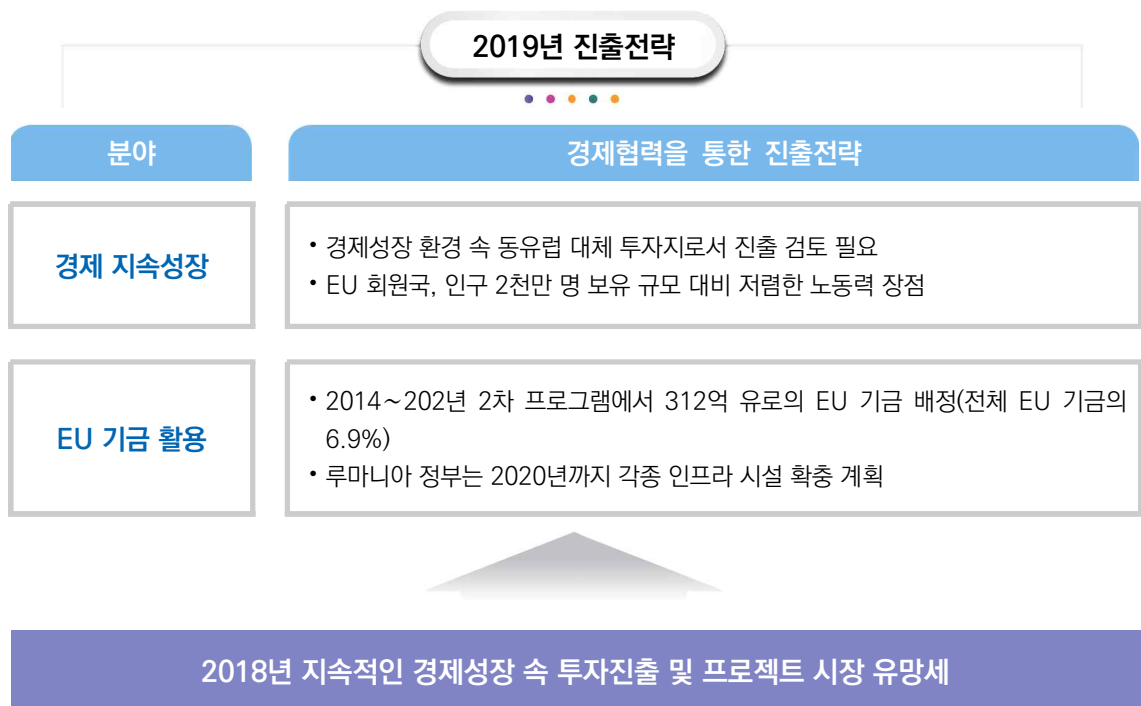
- 2016년 루마니아의 화장품 및 향수 판매는 12억 유로를 넘어섰고, 2018년에는 더욱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
- 한국기업의 경우 명품시장, 자체 개발상품 등 틈새시장 공략 필요

□ 주요 이슈 및 진출전략

- 한국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화장품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선 먼저 CE 인증을 발급받아야 함. 루마니아의 수입규제는 다른 EU 국가들과 동일하며, 한국기업들은 제품 성분의 수에 따라 특정 비용을 지불하면 인증서 발급이 가능
- 잠재 가능성이 있는 루마니아 바이어에게 샘플을 보내는 것을 권장. 아직 인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샘플은 언제든지 보낼 수 있음. 이후 루마니아 바이어가 샘플을 가지고 제품의 시장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음

- 루마니아 시장에서 제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럽 주요 전시회나 루마니아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매년 부쿠레슈티에서는 Cosmetics Beauty Fair가 열림 (www.expocosmetics.ro)
- 해외 브랜드들이 이미 루마니아 화장품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한국제품은 명품시장, 더모 코스메틱 시장 및 자체 제작상품 등 틈새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음
- 신제품 구매에 관심이 많은 도시 소비자들은 화장품 시장에서 중요한 소비 계층임

3. 한-루마니아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가. 경제성장 환경 속 투자진출 강화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임금 및 물가수준 고려 동유럽 대체 투자지로 부상 ○ EU 회원국, 인구 2천만 명 보유 규모 대비 저렴한 노동력 장점

□ EU 투자진출 대상지 가운데 최후 보루로서 가치 재검토

- 루마니아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인근 동유럽 국가들이 임금 및 물가수준 급상승으로 인한 비용증가와 신규 제조업 공장입지 절대부족 등 외국인투자유인 요소가 소멸해 가는 가운데 한 국기업의 투자 적격지로 최근 부상
- EU 역내국가 간 무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EU 회원국이라는 점과 인구 2천만 명을 보유한 단일시장으로서 경제규모 및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EU 생산거점으로서 매력 부각
- 루마니아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투자, 프로젝트 관련 제도, 법률 인프라가정비되면서 EU 역내 글로벌 기업 및 한국 주요 기업들의 투자진출 사례가급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무역관에서 투자진출 관련 제반 정보를 수집, 업데이트하여 잠재 투자진출기업들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됨

나. EU 기금 활용 프로젝트 분야 진출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014~2022년 2차 프로그램에서 312억 유로의 EU 기금 배정(전체 EU 기금의 6.9%)
- 루마니아 정부는 2020년까지 각종 인프라 시설 확충 계획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공공 프로젝트 시장 현황
 - 재무부 산하 공공조달청(National Agency for Public Procurement)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총 7만 8,798건의 입찰 프로젝트가 발표되었는데, 이는 2015년의 5만 6,002건보다 증가한 수치임. SEAP(공개매입전자시스템)으로 발행된 입찰도 약 29%로 증가함
 - 건설 분야 관련 공공 프로젝트가 대다수이며 정부는 이에 공공조달 프로젝트의 58%가량을 지출함
 - 루마니아 국립통계청에 의하면 공공조달 프로젝트 시장규모는 총 GDP 7,690억 레이(1,897억 달러) 중 145억 유로(163억 달러)를 차지
 - 공공 프로젝트 입찰에 성공한 회사 중 90% 이상이 유럽 회사이지만 2017년부터 EU 외 국가의 입찰자가 증가함
 - * 2016년에는 러시아 회사가 가장 큰 규모인 500만 유로(562만 달러) 계약 수주

○ 공공 프로젝트 시장 전망

- 재무부에 따르면 2017년 사회기반시설(운송) 관련 예산은 137억 6,000만 레이(34억 달러)로 60.3% 증가함. 이는 GDP의 1.69% 수준
- 정부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 지역병원, 고품 폐기물 소각로, 오폐수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립할 계획임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현지기업 및 EU 역내기업과 협력방안 모색

- 프로젝트 입찰의 경우 EU 기금 지원자격이 역내소재 기업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공사 진행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관행상 역내기업이 우선됨
- 조달 입찰의 경우에도 한-EU FTA에 따라 원칙적으로 한국기업의 입찰 참여에 대한 제한이나 차별은 없으나, 입찰공고부터 서류제출까지 전 과정이 루마니아어로 진행되는 등 한국기업이 불리한 상황임
- 현지 또는 역내기업과 컨소시엄을 통해 발주처와 네트워킹, 기자재 조달 등에서 유리한 여건 조성 필요

○ 현지에 유망한 컨설팅 업체와 협력하여 프로젝트 직접개발 필요

- 루마니아 정부는 EU 기금 소진을 위해 노력 중이나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미비한 상황임
- 따라서 한국기업은 현지에 정통한 프로젝트 컨설턴트와 협력하여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루마니아 정부에 제안할 경우 해당 프로젝트 수주에 결정적으로 유리함

○ (환경-수처리) EU의물관리기본규정(Water Framework Directive)을 루마니아에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약 210억 유로이며, 이 중 가장 큰 분야가 음용수 수질 개선 및 폐수 회수 처리로 2007~2027년 동안 171.6억 유로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

○ (환경-폐기물처리) EU의 ‘폐기물기본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이 요구하는 목표인 2020년까지 생활폐기물의 최소 50% 재활용과 건설 폐재의 최소 70% 재활용 달성을 위해 분리된 폐기물 회수시설의 전국적 보급 필요

○ (인프라-도로) 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s(TEN-T)와 여기에 연결하는 도로를 포함한 루마니아 국내 도로망의 개발 및 현대화가 2014~2020년 기간 중 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

○ (인프라-철도) 1990년 이후 철도망이 낙후되고 있으며, 철도차량도 약 70%가 노후화되어 철도를 통한 이동시간이 증가하고 있음. 철도망 중 5,919km가 수명이 다한 것으로 평가됨

- (인프라-해상) 2009년 이래 콘스탄차항의 교통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증가속도는 감소되고 있음. 콘스탄차항은 철도와 다뉴브강을 통해 루마니아와 주변국을 연결하고 있으며, 특히 다뉴브강과 흑해를 연결하는 운하는 화물 수송에 매우 중요한 루트임
- (인프라-항공) 2012년부터 여객수송 관련 항공교통에 대한 수요 증가가 두드러지기 시작. 부쿠레슈티, 티미쇼아라, 클루즈 나포카의 공항들은 국내 및 국제 여객항공을 위한 주요 공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화물항공은 부쿠레슈티, 클루즈 나포카, 아라드(Arad)가 요충지로 역할
- (에너지 효율성 제고) 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손실, 고비용 등에 따라 중앙집중식 지역난방 효율성 수준이 매우 낮아, 국가 전체적으로 2013년의 에너지 손실률은 26.8% 수준으로 2023년까지 15%로 낮추기 위한 사업을 적극 전개할 계획



수출유망 품목

품목명 1	HS Code	901890	수입관세율(%)	0
의료기기 (X-ray 장비, 영상장비, 수술기기, CT 등. 치과용 기기 및 의료용 소모품 제외)	수입액('15/US\$백만)	105.04	대한수입액('15/US\$백만)	0.579
	선정사유	가격 대비 경쟁력이 높고 기술력을 갖춘 제품 선호되는데 한국산 의료 기기는 유럽 및 미국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유사한 수준의 고품질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점점 더 루마니아 시장에서 알려지고 있음		
	시장동향	병원시설 낙후로 현대화, 개보수가 시급하며, 첨단장비가 거의 없어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음. 또한 현지에서는 현대화된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품목임		
	경쟁동향	독일이 전체 수입시장의 약 40%가량을 점해 왔으나, 최근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제품이 점유율을 높이면서 2015년에는 34% 미만으로 점유율이 감소함		
	진출방안	공공병원, 민간병원 모두 주로 입찰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므로, 병원 입찰에 참여하는 주요 벤더들을 통해 수출. 특히 영상장비, 환자감시장치 (Patient monitor)에 대한 수요가 높음		
품목명 2	HS Code	851769	수입관세율(%)	0 *851769.3990은 제외
IT 하드웨어	수입액('15/US\$백만)	58.954	대한수입액('15US\$백만)	0.313
	선정사유	정부차원의 IT 분야 현대화 계획을 활발히 추진 중이며, 한국제품의 인지도가 높아 경쟁력이 있음		
	시장동향	루마니아의 IT 시장은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지출이 루마니아의 경제 성장률을 능가할 것으로 기대. 브로드밴드 및 LTE 보급으로 관련 IT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 증가		
	경쟁동향	2014년 스웨덴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4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에스토니아가 23% 이상을 차지		
	진출방안	무선제어 자동화 장비,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이러한 수요에 대응		
품목명 3	HS Code	854140	수입관세율(%)	0
LED 제품	수입액('15/US\$백만)	119.393	대한수입액('15/US\$백만)	1.559
	선정사유	EU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2013년), 수은등 판매 금지(2015년) 등으로 대체수요 존재. 가로등을 비롯하여, 공공수요 물량이 많고 한국제품 경쟁력 확보. 저가제품과 하이테크제품 모두 수요 존재		
	시장동향	시장은 성숙단계로 접어들어 수요도 존재하지만, 공급자도 시장에 다수 진출해 있음		
	경쟁동향	독일이 수입시장의 거의 50%를 점하고 있으며, 네덜란드가 약 16%, 이탈리아가 약 7%를 점하고 있음		
	진출방안	바이어들은 혁신적인 제품을 원하지만, 가격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는 없으므로, 시장에 기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과 차별화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함		

품목명 4	HS Code	902780	수입관세율(%)	0 * 90278005는 2.5%(단, 한-EU FTA 적용 시 0%)
건강관리용 기기 및 제품(피부 관리용 기기 포함)	수입액('15/US\$백만)	31.108	대한수입액('15US\$백만)	0.329
	선정사유	루마니아인들도 점차 건강, 웰빙에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시장이 발달하기 시작		
	시장동향	소득수준이 점차 높아지면서, 주로 도시 중심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건강관리 기기 및 제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		
	경쟁동향	수입시장의 점유율은 독일 38%, 미국 9.6%, 중국 6.7% 순임		
	진출방안	혈당측정기나 체성분분석기(Hi-tech body analyzer), 슬로우푸드를 위한 소형가전에 대한 수요가 성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수요에 대응		
품목명 5	HS Code	540710	수입관세율(%)	8 * 한-EU FTA 적용 시 0%
섬유 및 직물	수입액('14/US\$백만)	76.94	대한수입액('14/US\$백만)	0.73
	선정사유	수입수요가 높으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이 좋은 품목임. FTA 수혜 품목이기도 함		
	시장동향	합성 및 천연섬유, 원자재에 대한 수입 수요 존재. 루마니아는 저임금, 숙련 노동력, 서유럽 시장과의 근접성을 바탕으로 유럽의 최대 의류 및 신발 제조업 국가로 자리잡고 있음. 현지 합성섬유 생산공장은 루마니아 국내 수요의 극히 일부만 충당하고 있어 대부분의 합성섬유는 해외로부터 수입되고 있음		
	경쟁동향	수입시장의 점유율은 영국 43%, 체코 19%, 이탈리아 18% 순임		
	진출방안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출하는 방안을 고려		



2019년 KOTRA 주요 사업 (잠정)

□ 루마니아 공공프로젝트 로드쇼

- 개최시기: 하반기
- 사업내용
 - 한-루마니아 정부 산업협력위 개최 시 부대행사로 개최
 - 한국 측 건설, IT, 엔지니어링 분야 30개사 및 루마니아 측 발주처 협력기업 40개사 참가
 - 한-루마니아 프로젝트 분야 포럼 및 발표, 1:1 상담진행
 - 주요 프로젝트 현장 방문실사 등

□ 루마니아 해외투자 네트워킹 상담회

- 개최시기: 하반기
- 사업내용
 - 한국기업의 對루마니아 및 동유럽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진
 - 현지기업과 M&A 및 합작투자 등을 희망하는 잠재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의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매칭 대상업체 발굴
 - 매칭이 된 한국기업을 사절단으로 유치하여 1:1 상담 진행 및 현지 유관정부와 단체 관계자의 시장동향 정보 파악 등 세부 프로그램 추진(한국업체 참가규모 10개사 내외)

□ 해외공공조달지원센터 운영

- 운영시기: 연중
- 사업내용:
 - 루마니아 공공조달 진출전략 수립
 - 현지 조달기관 벤더기업 발굴, 네트워크 관리 - 수주경험이 많고 신뢰도가 높은 현지 유망기업과 파트너링 기회 확대
 - 조달 계획, 분야별 프로젝트 발주 정보 발굴 및 전파, 입찰 참여 독려
 - 프로젝트 시장 진입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적극 해결 - 프로젝트 발주 공고에서 입찰서류 작성까지 모든 과정이 현지어로 진행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입찰정보 번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진입장벽 최소화
 - 유망 공공조달 프로젝트 성약을 위한 밀착 지원 기능수행 - 공공조달지원센터-한국투자기업 지원센터 간 연계, 입찰 참여 시 발생하는 법률상담, 파트너사와 갈등 완화, 수주 후 법인 설립 지원 등 포괄적 지원



첨부 3

2019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	비고
루마니아 대통령 선거	2019. 12	
루마니아 EU 각료이사회 의장국	2019. 1~6	
루마니아 EUSDR 의장국	2018. 11~2019. 11	

□ 유망 전시회 캘린더

- 행사 : 대형 전시회, 포럼 등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INDAGRA	2019년 하반기	

담당자

부쿠레슈티 무역관 김동민

Tel 40212332171

직책 과장

Email dongminkim@kotra.ro

2019 국별 진출전략

루마니아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